

대한민국 연극제 본선 ‘하녀들’ “미묘한 심리연기 기대”

광주극단 연극문화공동체DIC

26~27일 소극장 공연일번지 프랑스 작가 장 주네 원작 등 ‘계급갈등 모순적 감정’ 표현

마담이 외출한 저녁, 빈집에서 두 하녀가 은밀한 연극놀이를 시작한다. 그들은 항상 받들어 모셔야 했던 마담의 역할을 해보면서 평소의 불만을 터트리고, 급기야 두 하녀는 진짜로 마담을 살해하기로 결심하는데...

프랑스 극작가 장 주네가 1947년 쓴 희곡 ‘하녀들’의 내용이다. 광주 대표 극단 연극문화공동체DIC는 지난 3월 열린 제38회 광주연극제에서 이 작품으로 대상을 수상, 이 작품으로 오는 7월 제42회 대한민국 연극제 본선 무대에 오른다. 본선 무대에 앞서 연극문화공동체DIC는 광주 관객들을 위해 오는 26·27일 소극장 공연 일번지에서 극을 선보인다.

연극문화공동체 DIC의 공연 ‘하녀들’은 지배계급인 마담에 대한 두 하녀의 모순적 감정을 그린 원작을 최대한 성실하

게 따라가고 있다. 이미 유명한 작품으로 광주연극제에 출전한 만큼 ‘대상 수상’은 꿈에도 몰랐다. 광주 대표로 대한민국 연극제 무대에 나서게 된 이상 오랜 역량을 쏟아붓고 오겠다는 포부.

광주서 첫 공연을 앞둔 소극장 무대에서 배우와 스태프들은 만반의 준비에 한창이다. 무대 조명이 꺼진 채 진한 화장을 한 배우들의 단단한 얼굴이 눈에 들어온다.

임홍석 연극문화공동체DIC 대표는 “연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배역의 심리변화가 주된 극의 흐름인 ‘하녀들’을 연습하게 된 것인데, 좋은 성과로 이어져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일부터 본선 무대 전, 광주 공연을 마련했다”며 “하녀들이 벌이는 역할 바꾸기 연극놀이에는 꿈꾸는 환상과 현실의 심각한 괴리를 보여 주는데, 미묘한 심리변화를 표현하는 배우들의 연기가 극감상의 포인트다”고 설명했다.

하녀 율랑주 역을 맡은 이현숙 배우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개인의 욕망이 겹잡을 수 없이 발현되는 역할을 맡아 열연할 예정”이라며 “웃고 있어도 내면에는 다른 심리를 표현하며 연기하는 것이 새로운



오는 7월 제42회 대한민국 연극제 본선 무대에 오르는 ‘하녀들’로 무대 연습 중인 왼쪽부터 임홍석 연극문화공동체DIC 대표, 이효선·강인영·이현숙 배우.

도전이었다”고 말했다.

하녀 끌레르 역을 맡은 이효선 배우는 이번 출연 배우 세 명 중 가장 막내다. 그는 “계급 간 갈등에 관한 이야기인데 계급 상승 욕망을 생각하면서 연기했다”며 “DIC에서 첫 작품에 참여하는 거라 감회

가 남다르다. 선배들께 누가 되지 않도록 하고 싶다”고 말했다.

마담 역을 맡은 강인영 배우는 “내가 맡은 배역이 두 하녀의 갈등 요소다. 갈등을 증폭시키는 역할이라서 그 부분에 집중하면서 연습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극문화공동체DIC는 지난 1996년 광주에서 창단해, 현재 10여명의 프리랜서 단원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DIC는 Dramatic Imagination Community 약자로 표현과 상상을 통한 공연을 추구한다는 의미다. 광주 동구 충장로에 전용 소극장 공연일번지를 두고 있어 매년 2~3 작품을 통해 광주 관객들과 만나고 있다. 대표작으로 창작극 ‘실례합니다’ 시리즈가 있다.

광주서 극단생활을 이어간다는게 마냥 즐겁진 않다. 광주연극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크다.

임 대표는 “광주에서 소극장 연극은 ‘무료’라는 인식이 강하다. 시의 지원사업을 받더라도 단돈 얼마라도 내고 봐야 하는 공연문화가 극단과 소극장의 지속가능성을 이끌 수 있다”며 “이번 대한민국 연극제 출전을 통해 광주에서도 연극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말했다.

연극 ‘하녀들’ 공연은 오는 26일 오후 7시30분, 27일 오후5시 이어진다. 예매는 티켓링크 또는 현장에서 가능하다. 관람료는 2만원이다. 글·사진·도선인 기자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아트 오엔오 2024’ 참여

수목 특별전시 등 홍보

전라남도문화재단과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사무국은 ‘2025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의 성공 개최를 위해 지난 21일까지 국제아트페어 ‘ART OnO 2024(서울 SETEC)’ 등 수도권에서 수목전시 및 홍보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아트 오엔오 2024’는 20여개국 50여개 갤러리가 참가하는 국제아트페어로, 비엔날레사무국에서는 이곳을 찾는 국내·외 관람객에게 한국 전통회화인 수목을 알리기 위해 SETEC 전시장 내 ‘수목 특별전시’를 진행했다.

이번 아트페어 참여를 통해 현대 미술 트렌드를 견인하는 세계적인 갤러리 상대로 한국의 전통수목과 독특한 수목단체화 작품들을 선보여 국제수목비엔날레에 대한 기대와 관심을 모았다. 아울러, 하루 이용객이 4만여명인 수서역에서 ‘2025 전남

국제수목비엔날레’ 홍보 행사를 병행 추진해 예비 방문객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비엔날레사무국은 수서역 이용객들에게 비엔날레 상징 로고와 캐릭터인 ‘전남이’와 ‘수목이’가 그려진 실생활 용품(4종) 꾸러미를 증정하기도 했다.

김은영 전남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수목비엔날레의 대중화와 세계적 브랜드화를 위해 훌륭한 작품을 판매하는 국제아트페어 연계 수도권 현장 홍보를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국내·외 홍보 및 연계 전시회, 학술 심포지엄 등을 통해 수목의 가치 전파와 비엔날레 관심 제고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5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는 내년 9월부터 10월까지 두 달간 목포시와 진도군 등 전라남도 일원에서 열린다. 수목작품 전시 및 프로그램 운영, 학술심포지엄, 국제레지던시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도선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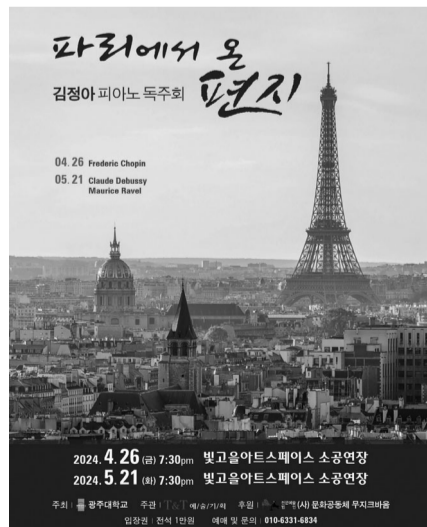
광주대 김정아 교수 피아노 독주회 ‘파리에서 온 편지’

26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소공연장

광주대학교 김정아 교수(청소년상당·평생교육학과)의 피아노 독주회 ‘파리에서 온 편지’ 공연이 오는 26일 오후 7시 30분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소공연장에서 열린다.

클래식 음악의 저변 확대를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 선보이고 있는 피아니스트 김정아는 지난 2018년부터 ‘피아니스트가 읽어주는 위대한 음악가의 편지’ 낭송 콘서트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비엔나에서 온 편지’ 연주회에 이어 이번에는 파리의 이방인 쇼팽의 음악으로 독주회 ‘파리에서 온 편지’를 준비했다.

연주 프로그램은 가장 쇼팽다운을 느낄 수 있는 녹턴(야상곡), 프렐류드(전주곡), 왈츠 등 그의 내밀한 개성이 담겨 있는 소품들이고, 그 외 피아노 협주곡 1번 2악장 ‘로망스’와 피아노 소나타 2번 중



‘장송행진곡’은 쇼팽의 끝없는 애처로움과 통곡의 노래를 들려준다.

김정아는 서울예고, 이화여대, 오스트리아 빈시립음악원과 독일 라이프치히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현재 광주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도선인 기자

ACC ‘지역 연계 문화예술 교육’ 진행

이주 여성·장애인 등 시민 대상

아시아 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체험하고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4~5월까지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시아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지역 연계 문화예술 교육’을 4차례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을 지향하는 ACC가 다문화 결혼 이주 여성, 중증 장애인, 어르신 등 다양한 시민들이 문화 향유 주체로서 문화예술에 관심을 갖고 아시아 문화 가치에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자 기획했다. 특히 모집 1분 만에 마감된 ACC 인기 프로그램 ‘아시아 공예’, ‘동아시아 정원문화 재해석’ 등 평소 참여하기 힘든 아시아 교육 체험을 통해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

먼저 ACC는 광주 동구와 남구 소재 가족센터와 연계해 다문화 결혼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 체험을 진행한다. 교육은 결혼이주여성들이 동아시아 정원 문화에 대한 나라별 특성과 자연을 대하는 아시아인들의 철학을 이해하고 체험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4~5월 광주의 여러 기관과 연계해 문화예술 교육을 운영한다. ACC 제공

수 있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또 광주남구의 ‘열린케어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연계,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공예 체험 강좌가 열린다. 강좌는 아시아의 공예 문화를 이해하고 나전칠기 기법을 활용해 공예 작품을 직접 제작하는 등 오감 체험활동으로 채워진다.

이외에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오감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ACC는 광주 동구노인종합복지관과 연계해 교육기관

현장 방문이 쉽지 않은 어르신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을 운영한다.

이강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은 “보다 많은 시민들이 아시아 문화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도록 지역 기관과 연계한 문화예술 체험교육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면서 “체험을 통해 다양한 아시아 문화를 자연스럽게 이해하며 공감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도선인 기자

제14회 광주비엔날레 참여작가 마타아호 컬렉티브

베니스비엔날레 황금사자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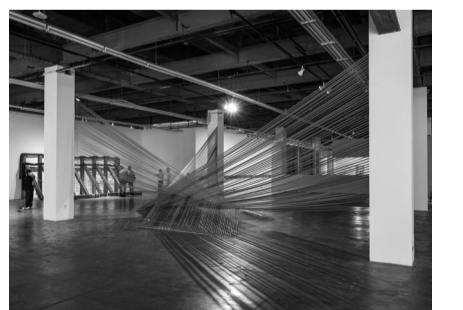
제14회 광주비엔날레에 참여했던 네 명의 마오리 여성들로 구성된 협업 공동체인 마타아호 컬렉티브(Mataaho Collective)가 제60회 베니스비엔날레 황금사자상을 받았다.

(재)광주비엔날레(대표이사 박양우)는 지난 20일 개막한 제60회 베니스비엔날레 미술전 본전시에서 참여한 마타아호 컬렉티브가 황금사자상을 수상했다고 베니스 현지에서 전했다.

마타아호 컬렉티브는 지난해 7월 9일 폐막한 제14회 광주비엔날레에서는 광주

비엔날레 전시관 3전시실에서 화물 고정 끈 같은 실용적 재료를 통해 마오리족의 전통 직조 기술을 동시대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활용한 작품 ‘투아키리키리’를 선보인 바 있다. 무거운 짐을 고정시켜 멀리까지 운반할 수 있도록 돕는 끈은 마오리 사회에서 아가나 식료품, 자원 등을 운반할 때 사용되는 ‘카웨’, 즉 운송 장치를 상기시킨다.

2012년에 레지던시를 통해 처음 만난 작가들은 선조들이 사용했던 기술과 이를 직접 구현하는 데 공통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 후 멤버들은 정기적으로 만나 섬유 기반의 대규모 작



제14회 광주비엔날레에 전시됐던 마타아호 컬렉티브의 작품. (재)광주비엔날레 제공

품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에 앞서 제60회 베니스비엔날레 평생공로상은 제10회 광주비엔날레 참여작가였던 닐 알터(Nil Yalter), 안나 마리아 마이올리노(Anna Maria Maiolino)가 수상했다. 도선인 기자